

聖市新聞

발행·인쇄인:조남진 편집인:조충환 (200-091)춘천시 효자1동373-90 대표전화(0361)256-1260-1 FAX(0361)257-1260

창간사



조남진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본부장

성시신문을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춘천성시운동이 시작된지 26년만의 일이며 춘천성시운동을 본격추진하기 위해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발족된지 2년만의 결실이라 하겠습니다.

춘천성시운동은 26년전 1972년 몇몇 평신도들이 모여 한국 대학선교회가 펼치고 있던 민족복음화운동을 전개하기에 앞서 지역복음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도운동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춘천지역 기독교도자들과 대학생선교회가 협의하여 춘천성시화운동위원회로 발족하게 되었고 전국에서 5천여명의 민족복음화운동 요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 전도등 춘천성시화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대회 이후 상설기구인 성시운동위원회는 폐쇄되고 성시화운동은 지속할 수 없어 쇠퇴한채 모든 교회의 기도와 일부 평신도들에 의한 소규모 연구, 기도모임으로 그 모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에 이르러 일부 열성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에 의해 춘천성시화운동은 다시 불붙게 되었고 96년에 이르러 기독교 운동체로써 춘천기독교연합회를 탄생시켰으며 이어 실질적인 상설실천기구로써 춘천성시운동본부가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96년 발족이래 교회 등 단체회원과 뜻있는 개인회원들의 협조하에 사무국장과 간사2명을 상근시키면서 춘천성시화에 대한 여러가지 사업들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성시화운동본부 2주년을 계기로 성시운동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성시신문을 발행하여 현재 전개되고 있는 춘천성시운동의 실체를 알리고 또 춘천 기독교계의 활동상을 널리 알리므로써 춘천지역 복음화의 길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성시화가 이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신문은 월간으로 발행하여 회원과 원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성시신문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의 의식을 바꾸며 진정한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도성이 될수 있도록 기도운동, 생활개혁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인사말씀



윤철중 목사
춘천성시화 운동본부대표회장
춘천기독교연합회장

춘천도성의 삼배여 교회, 남니 성도여러분, 그리고 춘천시민 여러분, 우리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들은 춘천을 세계 제일의 살기좋은 도시로 꿈꾸며 염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것을 물으거나 알면서도 방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윤리도덕이 전도되고 천박한 가치관이 인기품목으로 날뛰는 불신의 모습들이 삶의 현장을 장악해버린지 오래된 믿을수 없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도시를 주지 않으셨으며 엄중히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 도성을 살리려는 오늘의 선지자는 그 누구이며 그 단체와 그룹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입니까. 선교단체입니까. 기도모임입니까.

춘천 도성에 흠어져 저마다 자리하고 있는 삼배여 교회와 수만명의 성도들은 자기 처한 곳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신뢰할만한 도시복음으로 가득찬 아름다운 도시 성시화를 이루어 가는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성민들의 죄악을 요나 선지자에게

알리시고 회개하도록 계신하였습니다.

춘천의 기독교인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시화운동의 깃발아래 하나로 뭉쳐서 우리들이 꿈꾸고 염원해온 춘천성시화를 이룩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우리 도성의 모든 형제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나에게 물으실 것은 자명합니다. 번영 핑계의 기회는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움직일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간곡히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그 증거로써 춘천도성을 성시화 복음화 하라는 명령으로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성시화운동은 1972년 신실한 믿음의 종들에 의해서 씨를 뿌리게 되었고 1992년 8월2일 많은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물을 주었으며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성령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목회자들과 장로, 교회지도자들이 힘을 합하여 기독교 연합회를 창립하였고 1996년 9월19일 춘천성시화운동본부를 두게 되었으며 450여 성시회원들과 일부교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

성시화운동 참여 감사

1998년 9월19일 성시화운동본부창립 2주년을 맞아 기념예배를 하나님께 드릴수 있는 것을 생각할때 참으로 감격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욱이 성시신문을 창간할 수 있도록 성장한 모습을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간 춘천성시화운동에 물심양면으로 직접 참여하시어 원동력이 되어주신 성시회원님들과 교회 그리고 각 선교기관 타지역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창립2주년을 맞는 성시화운동본부와 2년동안 매주 목요일 기도의 단을 쌓아 주신 기도모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춘천을 복음이 보편화되고 상호신뢰할 수 있는 살기좋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성 성시화를 건설하고자 하는 모든이들위에 하늘의 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춘천성시화 운동본부 창립 2주년 축하

성시화의 깃발을 높이소서



양인평 장로
대전지방 법원장

성시화의 열기가 요원의 불길 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나라 성시운동의 발상지인 춘천성시화운동본부를 창립 2주년을 맞으면서 성시신문을 발행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고 우리모두가 기뻐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춘천지방 법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춘천성시화의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해 오며 헌신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제는 춘천성시화의 선교사를 자처하면서 대청춘사업(대전, 청주, 춘천의 복음화사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성시신문을 통해서 거룩하고 범죄없는 춘천을 갈망하는 모든 춘천시민의 가슴에 구체적인 성시화의 꿈이 심어지고,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더욱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신앙의 도시, 신용의 도시 춘천”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모두의 사명입니다.

춘천성시화운동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대표회장 윤철중목사님과 본부장 조남진 장로님 그리고 동역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시한번 성시신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시화의 모델도시 춘천을 만듭시다



전웅태 장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춘천성시화는 나의 꿈이요, 사명이었으며 이러한 마음은 내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춘천검사장으로 있을 때 성시화운동은 참으로 뜨거웠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뜨거운 성시화운동으로 기억되고 남아있으며, 그 뜨거운 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집니다.

춘천성시화 운동본부가 탄생한지 2년이 되었으니 빠른 세월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춘천에 계신 성도 여러분 세월이 가기 전에 나의 힘이 쇠하기 전에 춘천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성시화운동에 솔선하여 참가하실 것을 간히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역사속에서 춘천성시화운동을 보았으며 그때마다 늘 그 자리에 서있게 되었던 것을 회고하게 됩니다.

1972년 7월 춘천실내체육관에서 전국 대학생 오천여명이 모여 기도할 때

에 최초로 춘천성시화(Holiness City)란 거룩한 단어와 비전을 들었고 그후 20년간의 망각의 세월을 지나 1991년 8월 춘천지방검찰청 차장 겸사로 부임한 후 기관 단체장들과 성경공부를 하면서 저를 춘천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으며 한시라도 지체 할 수가 없어 직장 선교회 일꾼들과 손을 잡고 1992년 6월부터 8월 2일까지 연합집회와 예수평화대행진 등으로 성시화의 분화구를 열개하였고 그 불이 쉬지않고 뿔뿔 타오르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교회와 직장을 순회방문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성시화 일꾼들 비전126 춘천성시화 기도일꾼들 그리고 성시화운동의 열매인 홀리클럽의 신앙운동은 춘천성시화 운동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출범한지 2년만에 “성시신문”을 창간하게 되었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살아있는 신문으로 춘천의 기독교인들과 시민들을 깨우칠 수 있는 성시화의 햇불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시화운동을 통하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춘천을 건널할 수 있었으면... 소망합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창립2주년과 성시신문 창간을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거룩한 성시신문의 빛을



이범찬 원장

국가정보대학원장

이 터전을 바탕으로 성시화 운동본부가 정식으로 발족된 것은 제가 강원지부장으로 부임한 다음해인 96년 9월 19일로 기억됩니다. 돌이켜 보건대 이 뜻깊은 성시화운동에 미력한 자신이 약 1년반동안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커다란 개인의 영광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이 성스러운 운동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올라 이제 춘천성시화가 강원성도화로 아니 한반도를 복음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 여기 성시신문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위대한 탄생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할 때 참으로 놀랍고도 거룩한 하나님의 높고 귀한 뜻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구의 중심인 한반도, 한반도의 중심인 춘천에서 성시운동이 주님의 뜻 가운데 시작되었으므로 한국의 에루살렘이 되어서 복음의 생명수가 소양강 강물과 같이 흐르고 태백산 준령따라 멀리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것을 이루기 위해 윤철중 목사님을 대표회장으로 삼으시고 언론계에 다년간 몸담았던 조남진 장로님을 성시신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뿐입니다.

성시신문이라는 언론매체를 귀히 들어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참뜻을 겸손히 받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참으로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 복음신문이 되어, 우리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IMF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여 분단된 한반도에서 하루 속히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모두가 「기드온」의 용사가 되어 주님안에서 승리하여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나라가 되어야겠습니다.

다시한번 성시화운동에 헌신봉사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끊임없는 가호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여호와이레와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계뉴스

동 정

• 춘천기독교연합회 총회
춘천기독교 연합회에서는 오는 10월초 총회를 개최하고 회장등 임원개선과 사업을 확충지출예정이다.

• 제4회 기독교장로회 찬양
선교대회

직장선교연합회는 98년 9월 10일 저녁 7시에 동부장로교회에서 43개 직장선교회가 기독교기관 단체장과 교회지도자 등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직장별 찬양대회를 가졌으며 방승인이자 가수인 윤형주 장로

의 찬양과 간증으로 참가자들은 은혜의 밤을 보냈다.

이날 찬양대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조충환 목사, 맹영웅장로, 임창호교수, 유영호치과의원이 심사를 맡았다.

- 강원은행찬양단(강원도의회의장상)

- 강원도교육청찬양단(춘천성사회운동본부장)

- 한국통신 춘천전화국 찬양단(농협강원지역본부장)

- 월드비전 (구 선명회)강원도 지부찬양단(춘천장로연합회장상)

- 춘천교도소찬양단(춘천상공회의소장상)

- 강원대학교 찬양단(춘천기독교연합회장상)

- 2군단 한빛교회 찬양단(춘천시장상, 특별상)

• 98년 8월 20일 김종혁 집사가 강원은행 상임감사로 부임하여 춘천성시화를 위한 기도모임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기독교 선교 단체

단체명	책임자	전화	주소
C.C.C (한국대학생 선교회)	이갑용 간사	254-5776	춘천시 우체국 사서함 19호 대학생선교회
I.V.F (강원기독교학생회)	남귀식 간사	252-5200	춘천시 후평동 824-3 아시아 선교원(내)
J.D.M (예수제자운동)	엄상섭 간사	256-3192	춘천시 후평3동 859-1
U.B.F (대학생성경말씀선교회)	김바울 목사	253-4621	춘천시 효자2동 767-27
Y.W.A.M (예수전도단)	이동선 간사	252-1128	춘천시 후평3동 831-11
한사랑선교회	이영렬 전도사	243-9881 243-9891	춘천시 효자2동 223-2번지 1/1
네비게이도선교회	이종훈 간사	253-7081	
춘천기독교 직장선교 연합회	김영명 회장	241-4083 261-5771	춘천시 봉의동 산15 강원도청 산지이용과
	이영규 수석부회장	258-8073 262-4616	춘천시 중앙로 3가 61
	김용배 부회장	258-5361 253-3240	춘천시 사농동 84
	민병업 부회장	250-3422 254-5377	춘천시 옥천동 111
	김태권 부회장	262-0200 242-3356	춘천시 소양로2가 175-5
	박재복 총무	257-9040	봉의동 산15 강원도청
한국교육자 선교회	이학규 회장	(0366) 435-7853	춘천시 석사동 495-2
춘천기독교 기관장 지도자 기도모임	이학규 회장	(0366) 435-7853	춘천시 석사동 459-2
춘천성시화홀리클럽	조남진 회장	257-1260	춘천시 효자1동 373-90
	신종철 총무	261-6661	춘천시 석사동 696-3 유성빌딩 3층
비전 126 춘천성시화 기도모임	조은제 총무	257-5114	춘천시 효자1동 373-90

방 문



이윤구 박사
(전 한국선명회 회장) 방문 격려



남궁진 전
영월군수 방
문인사, 일반
시민으로서 본
운동에 동참하
고자 즉석에서 회원가입



유근참 집
사 강원대학
교교수 방문
격려 (화분 2
점)



이범찬 집
사 국가안전
기획부 정보대
학원장 전화격
려(후원금)



정동준 경기
지방방무청장
(전 강원지방
방무청장)전화
격려



류수열 집사
전화격려, 서
울MBC프로
덕선 사장



허선 장로
농협강원지역
본부장 방문



김주환 장로
춘천교도소장
방문

김중수 사장 (토요회 회장) 방
문격려(화분1점)

정삼문 목사 동원감리교회
담임 방문

신성균 목사 열린침례교회
담임방문

김집희 장로 춘천교육대학
명예교수, 춘천성시화 기독교
미술회 회장 방문

유태희 장로 춘천장로 연합
회 회장 방문

김진삼 강원도 사회복지 연
합회 사무국장 방문

한주식 장로 춘천기독교 장
로 연합회 총무방문

박영희 장로 전 농협 강원지
역본부 방문 인사.

김성진목사 동면장로교회,
성장 총회장 방문

장로교 주일 연합예배

1998년 9월6일 저녁 7시30 분 춘천제일장로교회에서 춘



1998년 9월6일 오후 7시30분 연합예배장면(제일장로교회)

천지역의 100여개 장로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 7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연합예배를 드리므로 장로교단이 하나되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었으며 이는 한국 장로교연합운동의 일환으로서 1996년도부터 계속되고 있다.

이날 예배의 사회는 성광교회 김광목 목사, 설교 성도교회 최은태 목사 특별기도로서 민족통일과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제일교회 박상호목사 한국장로교회의 연합과 부흥을 위하여 성민 교회 송종석 목사 춘천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한

신 교회 김유식 목사가님이 담당 하였고 장로교 연합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회장이신 동부교회 임신영목사의 직전회장(한빛교회 엄대섭 목사)에 대한 공로패 증정 및 인사말씀이 있었으며 수제민 돕기를 위한 헌금을 하였다.

그리고 장로교연합회에서는 1998년 12월7일(예정) 연합부흥회를 가질 예정이다.

장로교연합회의 조직은 전국적이며 아래와 같이 조직되어 있다.

「한국장로교 총 연합회 춘천 지역 연합회」

회장 : 임신영목사(동부교회)
부회장 : 최은태목사(성도교회), 사공정목사(중앙교회), 이창용성도(제일교회)

총무 : 장효근 목사(동성교회)

서기 : 권기호목사(시민교회)
회계 : 한남수장로(서상교회)
「장로교 주일연합예배 춘천 지역 준비 위원회」

고 문 : 강원하 목사 여운택 목사 빈보식 목사 임정목 목사 신항순 장로 김익보 장로 구영창 장로 한석용 장로 김재호 장로

지도위원 : 김은일 목사 엄태섭 목사 김정하 장로 김홍규 장로 이창용 장로

대 회 장 : 김광국 목사
부대회장 : 박상호 목사 송종석 목사 사공정 목사 김종만 목사

준비위원장 : 장효근 목사

직장 신앙 운동

"직장 정오 예배" 모든 직장의 복음화를 위해

정오 예배는
모든 선교회의 모범과
각 직장 선교의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1993년을 시작으로 오늘까
지 계속 되고 있다.

춘천지역 직장선교 회원들이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믿음을 확인하고 초교파적인 예배를 실현함으로써 교회는 하나라는 실증을 보여주고 있다.

"직장 정오예배"는 모든 선교회의 모범이 되고 각 직장선교의 원동력으로써 1993년부터 오늘까지 계속하고 있으며 모든 직장이 복음화되고 춘천도성이 성시화 될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날 예배 설교는 시내교회 목사님들이 차례로 지원하고 춘천동부교회 남선교회와 연합회의 정오예배 위원회가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여선교



회의 봉사로 맛있고 영양가있는 중식 제공으로 늘 사랑스런 마음을 실감하면서 식사를 나누고 있다.

예배시간은 30여분으로 10분에 개회하여 40분에 끝마친다.

설교자는 시간에 알맞게 농축된 말씀을 선포하여야 한다. 그러나 말씀에 끝이 없을때 예배에 참석한 회원들을

초조하게 만들고 금식해야 하는 에피소드도 발생한다.

회원들은 근무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금식하며 직장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리고 많은 음식상을 차리느라고 땀흘린 여성도님들은 실망감을 체험해야 하는 난처한 때도 있었다.

예배시간이 촉박한 것을 감지한 사

회자는 찬송가를 1절로 요약하고 순서를 생략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도 있었다.

정오예배를 30분내에 드리려면 순서담당자들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대표기도자, 찬양단, 설교자가 시간을 잘 지킨다면 은혜스러운 예배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아름다운 춘천도성되게

춘천의 기독교인들이 먼저
모범시민, 일등시민이 되어 주어야



배계섭
춘천시장

성시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춘천 성시화 운동은 춘천 시민들이 서로 믿고 법과 공동도덕을 잘 지키며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아름다운 도성을 만들고자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인 제가 앞장서야 할 시민운동인데 300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솔선 참여하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모범시민 육성을 위한 운동으로 실천될 수 있기를 바라며, 춘천의 기독교인들이 먼저 모범시민, 일등시민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같은 시민운동이 성숙될 때 모든 시민들은 저마다 앞다투어 모범시민이 되기를 원할 것이며 이것이 곧 성시화 운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시신문의 특성을 십분발휘하여 살기 좋은 춘천, 세계제일의 춘천을 만드는 일에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춘천성시화 운동본부 창립 2주년을 맞은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윤철중 목사님과 성시본부장 조남진 장로 그리고 모든 목회자와 교계지도자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택창 목사
석사감리교회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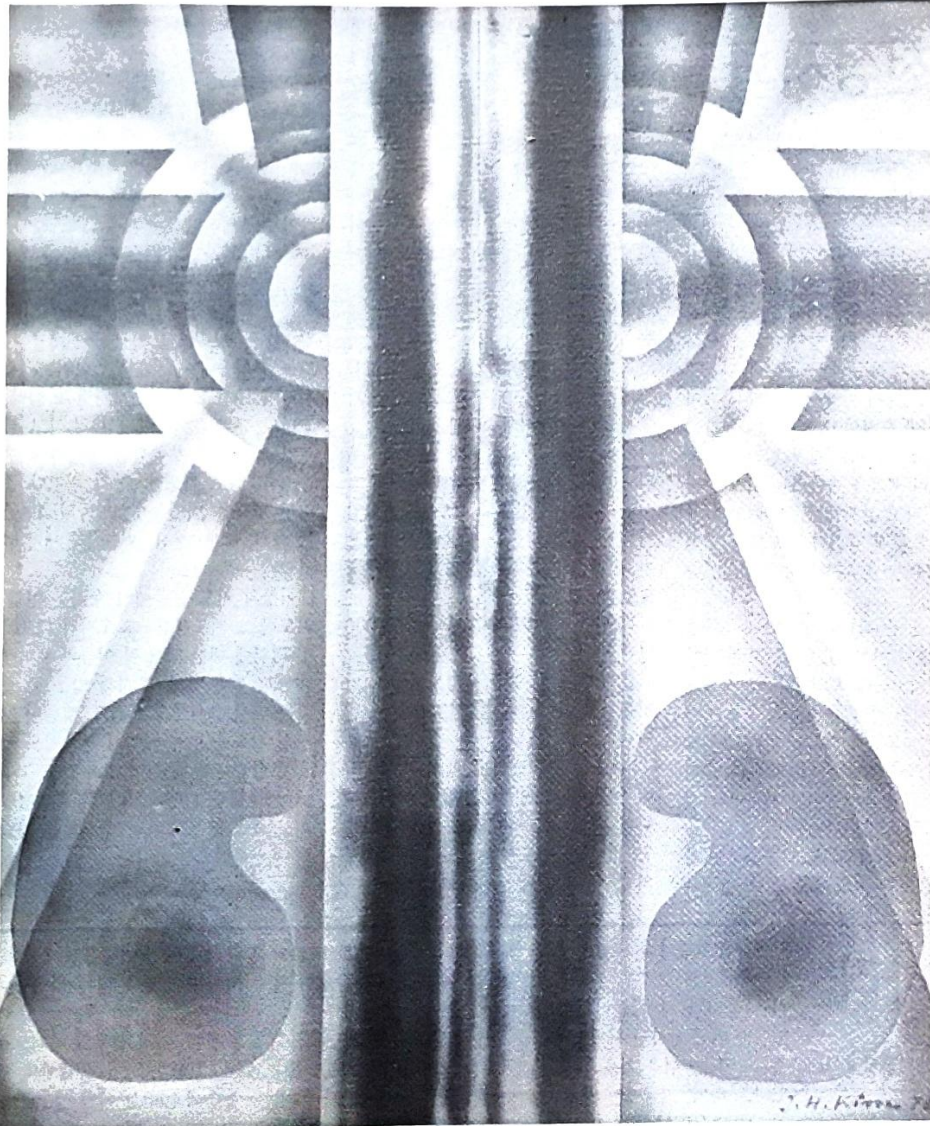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의 춘천을 더욱 훌륭하게 만드셨습니다. 멋이 있는 산, 잔잔한 호수, 그리고 하늘과 강의 조화 등은 창조주의 오묘한 작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자연 경관의 아름다움을 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의 평화와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춘천에 성시화가 필요하며 복음화가 있어야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사랑으로 다듬어진 새 사람들이 춘천에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 이런곳을 가리켜 지상낙원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러한 곳을 빛이 있는 마을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숨겨우지 못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빛의 내용은 "이와같이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시며 빛은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동임을 알수 있습니다. 빛이 계속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의미가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인 행동이 연속적으로 진행될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엔진이 계속 회전하기 위해서는 연료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의 빛의 행동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영적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시신문의 발간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동을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영적 동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신문의 창간을 축하하며 해마다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전 기독교연합회장,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기독교문화



작 품 명 : 십자가 74 (15호 유화)
 작품해설 : 갈보리 언덕 위,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돌아가신 사건을 추상화 한 작품. 그 구속의 빛나는 역사는 오늘날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감동으로 이끌어 주고 계심을 감사드리며 1974년에 제작한 작품.
 작 가 : 김정희(1932 · 춘천 출생)
 주요경력 : 1956. 춘천사범대학교 교수
 1963 - 1997 춘교육대학교 교수 (현 명예교수)
 1997. 국민훈장모란 수여
 1987. 강원도 문화상수상
 개인전3회단체전:한국 미협전 (64-96)
 강원미술대전 초대작가
 1997. 춘천성시기독교미술인회 회장
 1978. 춘천동부교회 장로 (현재)

춘천
성시화 운동에
불입



시인 이무상

있으면 모두 주고싶은
 만해는
 온통 감사뿐이다
 빌려쓰지 않으니 감사하고
 아이들 건강하니 감사하고
 감사로 시작되는 하루를
 이웃들은
 바보 같다고 해요

사랑할때 모두 주고싶듯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할때
 이웃엔 담이 무너지고
 싸움아닌 평화가 오고
 슬픔아닌 기쁨이 오고

그런 세상이 되면
 이 땅은 에덴일꺼여요.

샤론의 장미도
 예뻐수록 더욱 향기롭듯
 맑고 푸른 시민의 마음이
 믿음으로 하나되는
 그날이 되면
 사랑으로 가득찬 그날이 되면
 정말 춘천은
 아름다울 거예요.

세계 기독교 뉴스

기도운동과 춘천성시화



조은제 장로
비전 126 춘천성시화기도
모임 총무위원

근년의 전 세계 기도 운동의 특징은 전략적이며 연합된 기도라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전략적이라는 의미에서, 첫째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둘째 강력하면서도 효과적인 기도의 방법을 선택하자는 것이며, 또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합심하여 기도를 드림으로 어떤 지역을 오랜 세월 장악하고 있던 흑암의 세력에 대한 승리를 쟁취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운동이 범도시적으로 일어나서 승리를 선포한 몇 가지 예를 소개하여 춘천 성시화 운동을 위한 기도

운동에 힘을 얻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콜롬비아의 칼리에서 일어난 연합 기도 운동

콜롬비아는 마약조직이 국가의 정치, 경제를 장악하고 있었으며 마약조직의 폭탄 테러로 정치인, 법조인, 시민들이 무차별 살상 당하는 공포의 나라입니다. 칼리는 수도 보고타 다음의 제2의 도시로서 마약 카르텔의 본거지입니다. 이 도시의 교역자 연합회장이었던 Julio 목사는 "장차 칼리는 마약이 아니라 복음을 수출하는 도시가 될 것이다."라고 선포한 후 200여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금식과 기도로써 대적의 견고한 진을 파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1995년 봄 칼리의 크리스찬 5만명 중 2만명이 야외 경기장에 모여 철야기도를 하였는데 모인다는 것 자체가 폭탄 테러의 위험 등 죽음을 무릅쓴 결단으로서, 모임에 참석한 남녀노스 모든 크리스찬들은 눈물을 흘리며 승리의 깃발을 흔들고 칼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연합 기도회가 열린 그 주간에는 살인 사건이 한 건도 없었고(그 전에는

한달에 150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난던 도시임.) 기도 모임을 한지 10일 후 마약 조직의 두목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1995년 여름의 두번째 모임에는 4만명의 성도가 모여 기도를 하였는데 잠깐 인사차 들른 칼리 시장은 계획과 달리 무려 4시간이나 집회에 참석하며 "칼리의 주인은 예수이시다."하고 선포하였습니다.

1995년 11월에 열린 3번째 모임에는 5만명이 모여 3일간 철야기도를 하였는데, 이런 연합된 기도 운동의 영향을 받아 수도 보고타에서도 이러한 기도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Julio목사는 마약 조직으로부터 이 일을 계속하면 연말에 살해될 것이라 위협을 받았으나 기도 후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받고 전진하였으며 결국 그 해 12월 31일 암살 당하고 말았습니다.

1996년 4월 4번째 모임에는 55,000명이 참석.

1996년 5월 수많은 성도들이 시가지를 행진하며 예수를 선포함.(예수행진)

1996년 8월 열리고 행진을 계획하여 6일동안 수천명이 수십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기도하면서 도시를 돌았고 7일째에는 7번도시를 돌았는데 그로부터 2주후 마지막 남은 마약 조직 두목

이 자수를 하였습니다.

미국 발티모아에서의 연합기도

1998년 4월 발티모아에서는 교단을 초월하여 50여명의 목사님들이 모여 그 도시를(발티모아란 이름의 뜻은 '바알의 원'이란 뜻) 회복시켜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한날을 정하여 100명씩 팀을 만들고 각 팀마다 목사님의 인도로, 도시로 들어오는 관문-공항, 기차역, 버스 정류장, 항구, 고속도로 입구 등-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종 차별의 죄악, 교단의 교만, 영적 시기심, 그리고 서로간에 사랑이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수 각 팀마다 준비한 말뚝을 박았는데, 말뚝의 4면에는 화해, 회개, 갱신, 부흥이라 새겨 넣었습니다.

이상의 기도 운동에서 우리는 연합, 기도버스, 기도행진, 그 도시의 대표적인 죄악에 대한 회개 및 어둠의 세력에 대한 전투적 기도, 도시의 입구 등 중요한 영적 요새에서의 기도, 말뚝이 새겨진 말뚝을 박는 예언적 중보기도 등을 보았습니다. 춘천 성시화 기도 모임에서도 이런 다양하고 또한 효과적인 기도 운동을 도입하여 성시화를 강력히 후원하였으면 합니다.

(현. 베드로청형회과원장)

주의 길을 예비하라

전세계의 부흥소식 ①



김정희 집사
(춘천의료원
신경정신과장)

현재 전 세계 각처에서 들어오는 놀라운 부흥의 소식은 우리 세대가 마지막 대추수의 은혜 가운데 들어있음을 실감케 합니다.

1998년 1월 보고에 의하면 매일 14만명이 구원을 받고 있으며, 또 기증교회 안에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깊은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알고 교제하려는 열망, 전폭적인 헌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정이 성도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근자에는 10-40 창문 지역을 향한 전략적이고 연합된 대규모 기도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모슬렘이나 힌두 지역 등 선교사들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서 구원받았다는 보고가 수천건씩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25년간 구원받은 모슬렘의 숫자는 그 이전의 역사에서 구원받은 숫자를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미사일 폭격으로 인하여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는 수단에서는 모슬렘 정부군과 기독교 반군 사이에 20여년 간 내전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내란에서 사망한 120만명 중 100만명이 기독교인이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사막에서 십자가 처형을 하는 등 심한 핍박이 있지만, 고난속에서 교회는 놀라게 부흥하여 남부 수단의 한 마을에서는 목사가 불참해 살해당한 후 32,000명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놀라운 부흥 소식은 우리가 많이 들어 알고 있지만 최근 삼사년 사이의 부흥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며, 미국에서 발원하는 'CHARISMA' 지 1998년 1월호에 소개된 중국에서의 3가지 기적을 여기에 소개합니다.

첫째, 치유의 기적으로서 중국 북동부의 Chen이라는 여자가 위암에 걸려 앞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갑자기 통증이 심하여 병원으로 실려 갔는데, 치료하던 간호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후 암이 깨끗이 나갔습니다. 그녀는 곧 남편에게 증거하였고 집에 돌아와서는 동네 친척 25명을 모아놓고 증거 하였는데, 이들 25명은 1주일에 2번씩 모여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Chen은 여기에 서 그치지 않고 한달 후 이웃 마을에 가서 친척들을 모아놓고 증거 하였으며 1년 후에는 3개의 교회에서 150명을 목양하는 사역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치유의 기적을 통

해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는 역사가 중국에는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 인내의 기적으로서 중국의 성도들은 말하기를, 인내란 갓세마네의 선물로서 '죽을 지언정 계속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초자연적인 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히난성의 Moses Xi라는 가정교회 지도자는 삼자교회 등록을 거부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당국에서는 3명의 중죄인을 함께 넣고 Xi를 심하게 때리게 하여 이빨 4개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져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Xi에게 말하기를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만 않는다면 매질을 그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Xi는 육신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갈등하였으나 계속 기도한 후 예수를 증거하기로 결단하고, 끊임없는 매질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 18개월 후에는 72명의 최수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Xi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이빨은 모두 부러지고 팔은 부러졌다가 제대로 붙지 못해 불구가 되었으며 모래를 일

부러 잔뜩 집어넣은 밤을 계속 먹어 신장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셋째, 영적 전투의 기적으로서, 1997년 2월 동해안의 한 농촌에 Li라는 여자 성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날 무언가 타는 냄새에 잠을 깨보니 자신의 머리카락이 타고 있었고 이는 그녀의 남편이 아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조상신을 안 섬기는 것에 분개하여 불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Li는 들뜬에 나가 무릎 꿇고 남편이 예수를 믿고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시작하며 응답이 오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결심하였습니다. 한편 남편은 집에서 조상의 사진 앞에 절을 한 후 아침밥을 하기 위해 뒤돌아서는 순간 사진들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사진을 세워 놓고 돌아서는 데 또 사진이 파당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언가 좀 섬뜩한 기분이 들었고 사진을 다시 세워 놓은 후 벽들로 피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자마자 이번에는 사진들이 벽들을 뛰어 넘어 탁 없어졌습니다.

-다음호 계속-

성시학의 일꾼들



▲1996년 10월 1일 춘천시학회 운동본부 사무실 현판식 모습

춘천 성시회 추진위원 운영자금 1천만원을 지원하며 한국선교회 종합사 회복지관 강원지부장이 이남 현판식에는 춘천 신 조남진 장로님이 사무실을 제공하고 순복음 춘천교회(김주환목사)에서 많은 성시회 일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사진 전용태 검사장, 임택창 목사, 조남진 장로, 배계섭 춘천시장)

춘천 기독교 직장선교 연합회 임원

구 분	성명·신급	소속직장	전화번호	
			직장	가정
명예회장	조남진장로	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256-1261	252-6363
중경회장	허광웅장로	한국통신춘천전화국	251-5700	251-1441
"	조충환목사	춘천성시화운동본부	256-1260	255-2752
"	김남철장로	한국선교회 강원도지부	254-7244	257-6721
"	백기만장로	강원지방경찰청(퇴직)		255-5849
직전회장	조정일장로	강원대학교	250-8603	257-9033
회 장	강영명안수집사	강원도청	241-4083	261-5771
수석부회장	이영규장로	강원농협 지역본부	258-8073	262-5771
부 회 장	김용배장로	강원도교육청	258-5361	253-3240
"	민병업장로	춘천시청	250-3422	254-5377
"	김태권장로	한국통신춘천전화국	262-0200	242-3356
총 무	박재복집사	강원도청	257-9040	257-2914
협동총무	김철수권사	춘천교도소	260-8182	262-0786
"	이동우권사	한국통신춘천전화국	251-5700	243-3840
회 계	정태복자매	강원도청	241-4083	253-2021
감 사	박상운장로	춘천우체국	254-2001	242-2211
감 사	신용래집사	강원은행	241-0051	256-0543

직장선교회

선교회명	회장성명	직장전화	가정전화	직장주소	회부
강원도청	박무일장로	257-5102	255-8169	봉의동 산15	100
강원도교육청	김용배장로	258-5361	253-5335	사농동 84	31
춘천지방법원	부동호집사	257-9951		효자2동 23	23
춘천경찰청	이홍서집사	240-4553	56-6815	효자2동 10	10
강원도지방경찰청	정성옥집사	255-3000	256-2062	봉의동 산15	20
춘천교도소	김용인집사	260-8200	257-1676	동면거두리765	30
춘천지방법무청	최규수집사	240-6258	262-6777	효자2동 349-2	16
춘천시청	김용진장로	250-3544	252-5319	옥천동111	101
춘천경찰서	최명호집사	261-8106	243-2991	효자1동	15
한국통신춘천전화국	홍관호집사	242-2200	242-7188	소양로2가 175-5	30
춘천우체국	채능수집사	254-2001	253-0573	효자1동 676	20
한원강원지사	최재철장로	259-2281	254-0602	후평1동 95	20
강원대학교	명위식목사	250-7073	262-0721	후평2동 192-1	36
한림대학교	김용일집사	240-1091	251-3757	옥천동1	15
한국은행	주경미집사	258-3328	244-2926	중앙로1가 60-1	10
강원은행	이길호집사	255-4441	240-3634	운곡동72-3	51
농협춘천지구	민경옥장로	258-8251	255-0737	중앙로3가	24
신일금고	이광한집사	252-6991	252-6337	조양동 144-3	5
강원직접자택액원	전시은집사	263-7100	261-8476	중앙로1가	7
춘천의료원	엄태숙집사	258-2347	254-2822	효자3동17-2	37
강원일보	허 광 집사	258-1000	242-1595	중앙로1가 53	15
기사선교회	이수열집사		252-6651	017-372-6651	24
한국복지재단	이만복성도	242-0051		후평3동 899 세시3단지내	8
월드비전한국본부강원본부	강대봉집사	262-7248	257-0869	효자1동 373-90	15
기독교미용인회	지춘자집사	241-5478	252-4741	조양동5-47	15
춘천빌딩소	김규석장로	250-5114	262-1352	신복읍 용산리	12
춘천기술대학	오세동권사	254-7781	252-1652	후평1동 290-1	6
상업은행	조향운집사	255-7781	252-1652	후평1동 290-1	6
가정법률상담소	백명일집사	257-4688	254-3325	후평2동 711-18	4
(주)대양	정세환집사	256-6007		효자2동 709	10
강원중·고교	허남현장로	253-5384	257-1866	교동93	70
군인공제회	이태주집사	241-5658		신복읍 천천리 698-1	
성심병원	홍광진집사	256-6056	242-2297	교동153	30
홀트아동복지	정승기성도	254-6056	242-2297	교동153	30
세종호텔	김성광성도	254-1196		봉의동 산1	10
제일병원	김순희집사	254-1339	254-4614	교동93 74-1	5
농업기술연구소	원상운장로	242-5144		신복읍 유평2리	5
춘천여중	김용일장로	262-5663		효자2동 214-4	15
산림개발연구원	정성호집사	243-6013	254-9536	우두동 132-2	10
영창피아노	박수철집사	253-6354		중앙로2가 28	6
미도파배회	김영길집사	240-2431		조양동	

성시회원

(가, 나, 다 순·451명)

남궁 록/노수길/

기독교 학문연구회/강동균/강민복/강원영/강주원/경원옥/고선희/김정희/고순화/고영옥/고종명/공명옥/공운현/권순이/권영남/김근수/김선미/김복희/김철수/김진/김경하/김관수/김광순/김규현/김근섭/김금순/김기문/김기수/김기태/김남철/김덕실/김동섭/김두식/김만이/김미연/김미정/김미현/김보영/김복옥/김봉길/김부자/김상원/김선중/김성금/김성수/김성숙/김성옥/김성훈/김소심/김소진/김수정/김숙자/김갑수/김영남/김영달/김영명/김영선/김명숙/김영순/김영현/김옥경/김철옥/김용일/김용현/김원호/김유상/김유진/김은미/김은양/김은자/김은혜/김은희/김정란/김정복/김정숙/김정철/김정희/김종숙/김종우/김주배/김주현/김지애/김진영/김진현/김창남/김철수/김태중/김현미/김현배/김현숙/김현애/김현철/김형선/김형호/김혜민/김홍식/김화자/김희두/

동면장로교회/마철규/맹영웅/문계중/문병용/문순춘/민경애/민경원/민일홍/민혜원/

벤엘문화사/박경배/박경애/박경자/박기희/박노향/박동순/박동환/김진숙/박명관/박명옥/박미영/박민재/박민회/박성옥/박소영/박숙영/박순희/박승호/박승희/박연주/박영희/박은숙/박은주/박장부/박재복/박정주/박종래/박지영/박지배/박태훈/박현일/박희문/박희숙/박희태/배명숙/배경희/백기만/백영선/백원일/백유미/변차순

순복음춘천교회/선명회강원지부 신우회/사운정/서법석/서원탄/서희승/서자찬/서정학/설주진/성기은/손완승/손종금/손학균/송난의/송연민/송지현/신동수/신미령/신승미/신영숙/신영자/신영철/신재권/신재효/신현일/신혜옥/심문섭/심성우/심지영/심정경

어린이전도협회/열린교회/알로 에마임/안동규/안미정/안복순/안소영/안영수/안정숙/안주영/안중계/안혜숙/양기홍/양인명/어종옥/엄석조/엄서웅/엄선일/엄동철/오세창/오의석/오현근/왕순옥/왕정숙/왕관필/위재홍/위태규/위태식/유근창/유길수/유수열/유병립/유승권/유승호/유재옥/유정숙/유현미/유화청/윤건배/윤경희/윤금화/윤병숙/윤인숙/윤진옥/윤철희/이강진/이경애/이경용/이경자/이경호/이규현/이길숙/이문자/이미경/이미영/이민섭/이병근/이병련/이병록/이병연/이봉자/이상기/이상운/이석규/이수란/이숙녀/이승순/이승철/이연규/이영렬/이영순/이윤규/이윤민/이윤석/이유수/이유진/이윤규/이윤식/이은주/이은준/이은직/이자수/이재훈/이정숙/이정순/이정선/이정열/이정자/이정희/이종성/이종철/이종택/이주안/이준배/이진영/이철규/이철섭/이초승/이춘기/이판호/이학규/이혜영/이호익/이화자/이환영/이홍순/임규현/임길석/임성택/임승하/임옥영/임외호/임은경/임이남/임종만/임효실

중앙성결교회/직장선교연합회/장기영/장단수/장석필/장수영/장승규/장애중/장준홍/장지연/장철환/장현미/장효덕/전근우/전선숙/전소연/전영춘/전종덕/전준자/전호철/정광수/정국환/정규창/정남철/정명순/정상원/정성태/정순경/정순녀/정순자/정연심/정연주/정옥연/정용현/정유양/정재호/정종훈/정찬복/정창립/정춘화/정태선/정태훈/조광수/조기숙/조남진/조문자/조신희/조성애/조영란/조영자/조은자/조은세/조자영/조정일/조정희/조충환/조현희/조혜일/조호영/주동식/주창열/지계영/지금복/지봉근/지수영/지영철/지향순

춘천기독교 직장선교회/춘천택시(주)/차순길/차정립/채옥순/채희숙/천우석/최경용/최구식/최명철/최미향/최민희/최복규/최선덕/최승숙/최승한/최영숙/최영순/최영주/최영희/최옥선/최원기/최은영/최인혁/최일정/최정민/최정환/최종문/최지나/최지옥/최지철/최진희/최춘희/최지광/최현경/최현섭/최효숙 <다음호에 계속>

성시운동 기록관리



문선재 목사
(전 강원대총장)



조충환 목사
(성시 운동본부사무국장)



김영명 안수집사
(직장선교연합회장)

기록은 역사의 생명...

이곳에 춘천성시화 일꾼들의 생명이 숨쉬고 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필요한 일꾼들을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여기, 춘천 성시화운동의 기록보전에 남다른 관심으로 모든것을 드러 지켜온 숨은 일꾼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들이 그 역사를 읽고 소유할수 있게 된 것이다.

춘천성시화운동의 줄거리

• 춘천성시화운동이 시작된지도 벌써 27년째가 되었다. 70년대 초 몇몇 교역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여 성경 공부를 하면서 춘천성시화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춘천성시화운동위원회(위원장 김영호 목사, 작고)를 발족시켰으나, 1972년 8월 당시 전국적으로 민족 복음화 운동을 주도, 전개해왔던 한국대학생선교회(C.C.C)주관으로 춘천 시내 체육관에서 열린 전국대학생 집회를 계기로, 기독교학생들을 중심으로 춘천성시화운동이 전개되어 "깨끗한 도시 만들기" 사업들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김준곤 목사(C.C.C총재)의 춘천성시화운동 계획안 노트(95년도 문선재 당시 강원대학교총장, 23년간 소장)의 내용을 보면, 성시화운동목표와 목적, 조직, 일꾼단체훈련및 행사, 대집회, 실행조사와 세부계획안 마련, 총동원 총집중 전도, 미래의 비전, 성시운동의 대 전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72년 당시 짧은 기간 소규모적인 운동이 있었다는 것 외에는 실제적으로 전개한 운동 내용의 기록은 찾아볼수 없다.

• 춘천성시화운동이 태동한지 20여년이 경과한 1991년 8월초, 당시 춘천지방경찰청 차장검사로 부임한 전용태 권사께서 지역내 기관장·지도자 중심의 성경공부 기도모임(인도:최원수 목사)을 결성하고 춘천성시화의 꿈을 재검토했다. 시켜보자는 의견이 나와 기도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선 직장 복음화가 춘천성시화운동의 첨병임을 인식하고, 춘천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주체가 되어 교역자 연합회와 장로연합회의 후원으로 본격적인 성시화운동 목표를 실천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1992년 7월 1일 직장선교연합회(회장 조충환 장로)임원과 기독교기관단체장 등 80여명이 아침 기도모임을 시작으로 매주 초창 기도모임을 가졌으며 7월 14일 실로 성시화운동이 태동된지 20년만에 춘천어린이회관에서 열린 직장기독교인 선교대회를 통하여 성시화의 심지에 불을 붙이게 되었다.

그 해 8월 2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예수 평화 대행진"과 저녁 7시부터

춘천제일감리교회에서 초교과적인 연합집회를 통하여 성시화운동을 모든 성도들에게 공표하고 참여 동기를 부여하였다.

같은해 9월초 항구적이고 조직적인 성시화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조직하고 사업계획(안)을 마련, 10월 28일 교역자연합회의 요구에 따라 일선서류를 넘겨주었다.

• 이후 약 2년간(93년 10월부터 95년 8월까지)은 성시화운동의 제정비기로서, 춘천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에 성시화추진 위원회를 두고, 제1회 춘천지

연추회를 95년 8월 24일 춘천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성대히 개최하여 아름답고 수준 높은 찬양을 선보였으며, 많은 교회를 방문 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에 동참 내지는 기독교 음악발전과 성시화 열기를 가속화 시켰다.

• 춘천성시화운동의 새로운 도약기는 1995년 「Amen Coral」의 창단연주회 직후인 9월 20일 춘천성시화의 꿈의 실현을 갈망하며, 춘천지방 검찰청 검사장으로 부임한 전용태(田溶泰) 장로님과 춘천성시화의 주역들(조남진, 조충환, 이학규, 김남철, 조정일)등

10월 26일 드디어 춘천어린이회관에서 「성시화를 위한 직장인 기도회」를 열고, 성시화의 비전 제시(조남진 장로), 성시화의 추진방향과 선교보고(전용태 장로)등 도약의 선언과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했다.

이 때부터 "춘천성시화를 위한 기도모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매주 금요일 저녁 기독교기관장과 직장선교회 임원들이 모여 성시화를 위한 각종 사업 협의와 나라와 민족, 춘천성시화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였는데, 검사장의 관심은"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기도의 집"으로서 기도의 열기를 더하게 되었다.

춘천 성시화의 계획을 추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11월 9일 국가 안전 기획부 강원지부장으로 이법관 집사님을 보내 주셨고 11월 23일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양인평 장로님을 보내어 성시화의 일꾼을 보강하셨으며 성시화의 기도모임은 더 뜨겁고 힘차게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 때에 기도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문선재 목사(강원대 총장), 조남진 장로(강원일보 사장), 전용태 장로(검사장), 김용한 권사(C.B.S춘천방송 본부장), 최종문 집사(강원은행장), 심동성 집사(춘천지검), 조충환 목사(당시 직장선교연합회장), 유근장 집사(강대교수), 조정일 장로(강원대), 박수복 집사(상공회의소장) 등이었다.

• 춘천성시화운동의 결실기를 맞은 1996년도에는 "성시화 기도모임"을 매주 금요일 계속 하였으며 기도의 용사들은 점점 증가되었다. 윤중국 장로(도의회의장), 손동진 집사(기무부대장), 배계섭 집사(춘천시장), 이법관 집사(안기부장), 양인평 장로(법원장), 조은제 장로(메트로 병원장), 권재원 집사(한전지사장), 임무룡(당시 강원도내무국장), 송임수 집사(당시 도의회부의장), 이학규 장로(당시 교육자연합회장), 유규만(KBS총국장), 이태수 판사(춘천지법), 이경준 목사(선명회), 이상표 목사(군인선교회), 안동규 교수(한림대), 차성도 교수(강원대)등 30명으로 늘어났다.(김영명 기자)

(다음호에 계속)



역 직장기독교인 찬양선교대회(94. 3. 12), 제1회 강원도·시·군청 기독교인 연합선교대회(94. 6. 16)등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였으며, 한편 춘천기독교학문 연구회와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이 성시화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학문적 연구를 시작하면서, 이들이 주관하고 직장선교연합회 등 각선교단체가 후원하는 「춘천성시화 진로 모색」이란 주제하에 "복음과 춘천 94" 집회가 94. 9. 8~9일까지 춘천제일장로교회에서 열렸다.

그해 10월 11일에는 직장선교연합회에서 주관하고 교역자 연합회, 장로연합회가 후원으로 한 오르간리스트 오순회교수와 임창호교수를 초청 국내 최초로 "오르간 연주 음악 감상회"를 열어(제일장로교회), 교회음악의 관심도 제고와 수준향상에 기여하였다.

성시화운동의 열기를 다시 지피는 전 문기독합창단 「Amen Coral」의 창단

이 9월 21일 저녁 다시 만남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성시화운동의 도약기 첫번째 사역으로 9월 27일 기사선교회를 통한 「교토 낙원 춘천」만들기와 각 직장마다 성시화, 직장복음화의 표어를 선정, 제작, 전도 방안을 구상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먼저 「성시화 추진을 위한 직장인 기도회」를 열기도 하고 직장선교 연합회 임원들이 주축이 되어 매주 기도모임을 갖고 기도회 계획과 준비를 하여 오다가 10월 13일을 기하여 기독교기관장과 각 직장선교회장들이 강원대학교 태백관(식당)에서 아침기도모임을 갖고 성시화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모임을 갖기로 하였으며, 16일 낮에는 직장 선교 연합회 임원회의, 10월 17일에는 서울 근교 태능에 있는 천보산민족지원회에서 춘천지역 기관장 및 직장선교회장 등 23명이 철야기도회에 참석 성시화 도약의 열기를 가속화시켰다.

시민광장 · 시민과 함께

복음전파와 경고의 파숫군이 되시길



조영훈 장로
(춘천 CBS 본부장 조영훈)

'성시신문'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춘천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시화운동'이 일어난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총 가운데 2년 전에 성시화운동본부가 출범하였고 이제 2주년 기념으로 '성시신문'을 창간하는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시화운동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춘천을 예수의 정신과 복음의 원리가 통용되는 사회, 즉 그리스도의 정신이 보편화된 지역을 만들자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춘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

들을 그리스도의 제자화 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시신문'이 성시화운동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성시화운동을 효과적으로 확산시키는 임무를 잘 수행하게 되길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춘천지역 구석구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심령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신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민족에게 경고의 나팔을 부는 파숫군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숫군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 지어다(에스겔 33:7)"

그러나 '파숫군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은 경우 그 죄를 내가 파숫군에게서 찾으리라'는 경고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역사적 창간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성시신문'은 춘천 성시화의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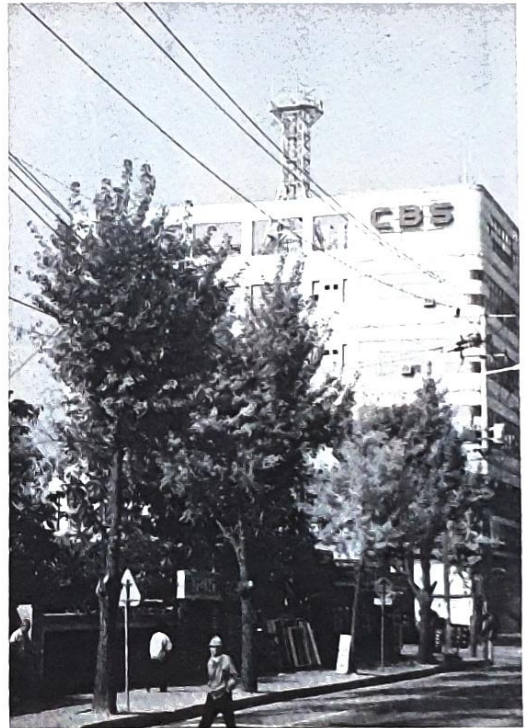
행 과정을 잘 전달하고 춘천이 갖고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따른 상황 판단과 여론 형성 그리고 춘천 교계의 사랑방과 같은 정보

교환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저희 기독교 방송이 갖고 있는 사명과 중보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CBS는 전파 매체를 통하여, '성시신문'은 인쇄 매체를 통하여 상호 보완을 하면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춘천 성시화는 보다 앞당겨 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매진하십시오. '성시신문'의 창간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선명회와 춘천성시화



이순훈장로
(선명회 춘천 종합사회복지관장)

한국선명회 춘천종합사회복지관은 국제선명회의 일원으로 우리지역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는 기독교 신앙위에 세워진 봉사기관입니다. 당초 1950년 한국 전쟁으로 인한 전쟁고아와 미망인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1991년부터는 완전자립 국내후원자 중심으로 국내외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3개 복지관을 통해서 저소득층 아동과 76개 시설아동을 결연 사업으로 돕고 있습니다.

저희 춘천종합사회복지관은 본부 사업과 자체 사업을 실시 영세 어린이들로부터 결식노인들까지 최선을 다하여

보살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많은 부분은 우리 지역의 후원자님들과 교회, 학교, 사회단체들의 따뜻한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후원자들이야말로 선명회의 등불이

요, 어두운 우리 사회를 밝히는 생명의 빛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명회(World Vision)는 문자 그대로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려는 봉사기관입니다. 저희 선명회를 통한 우리들의 봉사의 마음과 손길은 세상의 빛이 되어 나타

나게 됩니다.

우리 춘천은 천년적으로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진정 아름다운 도시가 되려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과 행위가 아름다워져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은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싱그럽고 희망이 솟구치는 듯한 아름다운 이름이 이러한 일을 위하여 높게 떠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춘천 성시화 운동입니다.

성시화와 선명회의 두 빛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도시의 어두움을 밝게 비추일 것이며, 이 빛들이 온 도시에 편만해 질 때에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든 질서가 바르게 서는 살기 좋은 아름다운 도시, 성시가 될 것입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창립 2주년과 성시신문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진으로 본 성시화운동사



1972년 4월 4일 춘천성시화 대회를 앞두고 김준곤 목사초청, 당시 강원도지사 (최종완)참석 조찬 기도회 모습



1972년 5월 춘천성시화 대회 준비를 위한 교역자와 평신도 지도자 회의 모습 (대 한생명 춘천지점 회의실)



1972년 7월 춘천실내 체육관에서 전국 대학생 5,000명의 뜨거운 집회모습(강사 : 김준곤 목사)



1974년 10월 평신도 성경구락부 주최 춘천성시화, 복음화 연합집회 장면(강사 : 조웅기 목사)



1974년 10월 16일 춘천성시화, 복음화를 위한 집회를 마치고 도지사, 기관장 조 찬 기도회 모습(강사 : 조웅기 목사)



1976년 10월 평신도회가 주관한 예수원 토레이 신부 초청 신앙강좌를 마치고



1979년 7월 7일 춘천성시화 평신도 위원회에서 최재선 박사를 초청 신앙강좌를 마치고



1990년 4월 17일 동부장로교회에서 춘천기독교 직정선교 연합회 창립예배 모습

사진으로 본 성시화운동사



동부교회 기도실에서 춘천기독교 직장선교 연합회 기도회 모습



1992년 7월 14일 춘천 기독교 직장선교 연합회가 어린이회관에서 춘천성시화를 위한 직장선교대회의 장면



1992년 8월 2일 춘천성시화 예수평화 대행진의 모습(시청-종합운동장)



1992년 8월 2일 예수 평화 대행진 출발전 장면



1992년 8월 2일 춘천제일감리교회에서 춘천의 모든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춘천성시화 연합예배를 드렸다.



1992년 11월 8일 춘천성시화를 위한 시와 찬양 간증의 밤(시인 김소엽 권사 등 맹인 예술단 초청)



기관장 지도자 교회방문 기도모임(거성침례교회)



1995년 10월 26일 어린이회관에서 성시화를 위한 직장인들의 기도모임

춘천성시화의 길(Dream→Vision→Mission)



안동규 교수
(한림대학교교수)

우리들 인생은 누구나 길을 가는 자들이다. 좁은 길, 넓은 길, 성공의 길, 멸망의 길... 우리에게 달려갈 길들이 앞에 놓여있다. 춘천 성시화의 길은 과연 어떤 모습의 길인가.

첫째로 이것은 꿈(Dream)의 길이다. 30여년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시화의 꿈을 품게 되었다. 춘천도성을 하나님께 통째로 드리며, 춘천을 성시로 만들자는 꿈이었다. 그 길은 꿈과 소망의 길이었다. 그들은 기도하였고, 성시화를 꿈꾸며 그 길은 오늘까지 달

려왔던 길이다.

둘째로 성시화의 길은 비전(Vision)의 길이다.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비전으로 구체화 시키면서 비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신앙의 선배들이 꾸었던 꿈이 후배들과 함께 비전으로 승화되고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셋째로 이 길은 사명(Mission)의 길이다. 앞선 자들이 품었던 꿈이 비전으로 바뀌었고 이제 춘천 성시화는 춘천지역에 사는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꿈의 길에서 비전의 길 나아가서 사명의 길 이것이 바로 성시화의 길인 것이다. 우리는 이제 성시화의 사명의 길을 가는 자들이다.

성시화의 길은 과연 어떤 성격의 길이어야 하는가.

첫째로 성시화의 길은 공동체적 길이어야 한다. 소수의 몇몇 개인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하는 전체적인 길이어야 하며, 믿는 자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도 동참을 하는 모든 자

가 함께 하는 공동체적 길이어야 한다.

둘째로 성시화의 길은 성령께서 운전하시는 길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어야 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어야 하며, 성령의 인도하시는 길이어야 한다. 춘천도성의 모든 영역-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 주의 주되심(Lordship)이 모든 영역에서 발휘되는 성시화가 되어야 한다. 춘천성시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춘천의 모든 것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춘천 복음화는 춘천 성시화의 하나의 부분적인 목표이다. 성시화는 복음화보다 더 큰 그림이며 더 궁극적인 목표이다.

셋째로 성시화적인 길은 청지기적인 길이어야 한다.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와 은사가 청지기적 사명을 통해 모두 드러나야 한다. 춘천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우리는 단지 춘천을 맡은 청지기일 뿐이다.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 역할을 통해서 춘천도성의 하나님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 운동의 성

격은 조직적이기보다는 참여적이어야 할 것이며, 대표적이기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구조가 더 바람직하다. 몇몇 사람들이 대표하는 형태보다는 구성원들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다.

넷째로 성시화의 길은 춘천에서 시작하여 다른 도시로 계속 확장되어야 한다. 춘천 성시화의 길은 원주성시화, 강릉 성시화, 대전 성시화, 인천 성시화, 제주 성시화... 끝없이 다른 길로 이어져야 한다. 길의 생명은 그 길로 연결이 되어있는 것이다. 춘천성시화는 따라서 다른 지역 성시화의 꿈과 비전과 사명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 도시 전체가 통째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춘천도시 전체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춘천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될때 춘천도성은 춘천교회가 되는 것이다. 춘천 성시화의 길은 좁은 길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만 될 길이며, 힘든 길이지만 믿는 자들이 먼저 걸어야 될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며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길이다.

춘천성시화와 성도의 신앙생활



유근창 교수
춘천기독교기관장·지도자·
홀리클럽지도모임총무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도시에서 살기를 원한다. 孟母三遷之歎란 말도 이런 뜻으로 해석된다. 공원은 공업도시에서, 상인은 상업도시에서, 연예인은 예술도시에서 각각 살고 싶어한다. 이는 자기의 중요한 생활이 제도시 주위의 여건에 잘 조화될 수 있는 삶의 터전에서 사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고장을 주님의 도시로 만들어 모든 제도와 생활과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 기독교 도시로 태어나면 우리의 생활은 기쁨이 넘

치는 삶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운동이 다른 도시로 전파되어 남북한을 막론하고 온 나라가 성역화 되어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고 생각된다.

성시화! 거룩한 도성이 되기 위하여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 도성이 성시가 되어 모든 제도와 인위적인 환경이 기독교에 바탕을 두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기쁨을 얻으려면
오직 믿음 안에서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는 다른
기쁨을 얻어야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을 평가할 때 물질이나 환경을 가지고 따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유행적인 것은 항상 가변적이고 만족이 되었어도 더 많은 양이나 또 다른 욕구가 생겨서 끊임없는 욕망을 채우려다 보면 불행해지기 십상이다.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기쁨을 얻으려면 오직 믿음 안에서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는 다른 기쁨을 얻어야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스위스의 제네바나 미국의 펜사콜라와 같이 범죄가 없고 성령이 충만한 도시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가 사는 고장 춘천도성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성, 성스러운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된다.

라면 우선 이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반수이상인 하나님을 섬기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려면 성령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 마가다락방의 성령이 임재하심도, 펜사콜라시 빌하임교회의 기적과 이사도 모두 뜨거운 기도 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첫째는 우리들의 주위에 안민은 시민들을 주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 받도록 전도와 선교를 생활화 해야 하지만 모든 생각과 행동이 빛과 소금이 되어 본을 보일때 이 일이 가능하고 이를 위하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해

야 한다.

오직 성령께서 너희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6:1)하신 말씀은 우리들 자신이 먼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변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둘째는 춘천에 있는 모든 교회와 기독교기관이 교파나 주체를 초월하여 하나가 되어 성시화에 하나된 모습으로 협력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주님께서

는 뜻이 있으셔서 25년전부터 춘천성시화에 꿈을 주시고 소수의 백성이 모여 기도케 하였고 그 명맥이 오늘까지 이어져 왔지만 작금의 현실로는 성시화의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셋째는 우리들의 헌신을 위한 기도이다. 성시화를 위하여는 많은 노력과 시간과 손길이 필요하다. 물질의 헌신도 필요하다. 내 자신의 헌신은 없이 막연한 성시화의 기도는 주님께서 의롭다고 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헌신은 우리 자신이 성시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현 강원대학교 교수)

FM 93.7 MHz

CBS방송순서

시	분	평 일		주 일		분	시
05	00-30	뉴스	새아침입니다(춘천)		뉴스	00-30	05
	30-35		아침강단	30-35			
	35-00			35-00			
06	00-05	뉴스	날마다 주님과 함께(춘천) 오늘의 말씀	CBS교계뉴스	뉴스	00-05	06
	05-10	CBS교계뉴스			CBS교계뉴스	05-10	
	10-20					10-20	
	20-30					20-30	
	30-35	뉴스			뉴스	30-35	
35-00		생명의 양식(춘천)		35-00			
07	00-05	뉴스	뉴스전망		뉴스	00-05	07
	05-25	뉴스해설			05-25		
10	25-30					25-30	10
	30-35		말씀의 원터(춘천)		30-35		
11	35-00		아름다운 당신에게(춘천)			35-00	11
	00-30		라디오교회(춘천)		00-30		
1	30-00					30-00	1
	00-05	뉴스	새롭게 하소서 나의 5분간(춘천) 월, 화, 수, 토		뉴스	00-05	
	05-55				05-55		
55-00		55-00					
5	00-05	뉴스	지방시대 937(춘천)		뉴스	00-05	5
	05-30					05-50	
	30-35	뉴스			교회순례(춘천) 이주일의 시간(춘천) 선교비전 21세기 CBS저녁종합뉴스	50-00	
6	35-00					30-00	6
	00-20	오늘의 주식 산업뉴스	CBS 저녁종합뉴스	(토) 산업현장 IMF의 파도를 넘자	CBS저녁종합뉴스	00-30	
	20-25						
25-30							
7	30-00					30-00	7
	00-30	뉴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사람의 동선	뉴스	00-30	
	30-35					30-35	
35-00	35-00						
8	00-05	뉴스	통일로 가는길		뉴스	00-30	8
	05-30				30-35		
	30-35				35-00		
9	35-00				뉴스	30-35	9
	00-05	뉴스	다함께 찬양을 이 기쁜소식(춘천) 월, 일 라디오강단(춘천) 월, 화, 수, 목, 토, 일		뉴스	00-05	
	05-20				05-20		
20-30		20-30					
10	30-35	뉴스				30-35	10
	35-00					35-00	
	00-05	뉴스	강원종합매거진(춘천)		00-00		
10	05-00		라디오 부흥회				10

한국선명회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주간 프로그램 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밤과후 아동보호 프로그램(월~금요일), 차량운행					
	춘천어린이집 운영(월~토요일) 07:00 - 19:00, 차량운행					
주민편의시설제공	주민종합상담실 운영(월~토요일) 각종상담					
(예식장,회의장소등)						
	선명회 춘천 어린이합창단 연습		선명회 춘천 어린이합창단 연습	노인자원봉사 지도자 프로그램	청소년동아리지도 (연극, 풍물, 문예)	
	여성복지대학 운영(월~금요일)홈패션, 양재, 미용, 스텐실, 기초영어, 영어회화					
	파출원 알선(월~일요일, 오전8시~10시)					
	청소년 그룹 스터디 운영(월~금요일) 학습지(영어, 수학, 기타) 19:00~21:00, 차량운행					지역단위별청소년 자원봉사단모집 (15:00~17:00)
	문해교실 (한글, 산수, 문맹자 교육)		문해교실 (한글, 산수, 문맹자 교육)	노인복지대학 및 대학원운영 (10:00~15:00) 과별강의, 교양강좌		
	청소년궁부방 운영(월~일요일) 23:00까지 개방, 차량운행					
	노인장수식당 운영(월~금요일) 65세이상 노인 무료점심식사 제공					
	열린정보 중계실(월~토요일) 각종정보제공(구인, 구직정보)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 결연후원금 제공, 한방진료, 사랑의 도시락, 목욕, 가정봉사원 파견, 이·미용(가정방문) 물리치료, 정서적 노인달란트 교실운영, 자립지원서비스					

성시화운동에 불을 지피는 신문으로



허 천 장로
(강원도의회 의장)

1972년 가을에 불씨를 물었던 춘천성시화운동은 20여년간의 긴 세월을 눈

에 띄지 않게 그대로 인듯 하였으나 봄
동산에 얼음을 녹이는 지열처럼 뜨거
운 불을 지피 왔으며 1990년 들어 그
분화구를 열고 솟구쳐 올라 뿔뿔 타오
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과 소망
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춘천성시화운동이 우리나라 여러
도시로 번져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
면서 성시화운동이 구체적이고 실질적
으로 이루어져 성시 모델 도시로서 부
족함이 없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
합니다.

호반도시로서 자연환경만 아름다울 것
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시민들의 마음
이 아름답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성시화를 역행

하고 있는듯 윤리와 도덕, 가치관은 전
도되고 뻔뻔해져 가는 불신, 속고 속이
는 사람이 없는 어두운 사회가 되고 있
습니다.

강원도민의 대표기관인 저희 도의회에
서는 1995년 7월 제4대 의회가 출범
한 후 의회 의원 기독교 연합회(회장
김형재 장로)를 조직하고 제5대(회장
조규병 장로)의회에 까지 매월 회기 시
작전 먼저 신우회원들이 한자리에 모
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신앙을 다
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의회가 되
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시화운동의 관건은 먼저 춘천의 모
든 교회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시민
들의 칭찬을 받는 모범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며
자료를 제공하고 추구를 가하는 것이
바로 성시신문의 역할이라 하겠습니
다.

성시신문은 성시화운동의 활력소이며,
성도들의 영양소가 되고 모범시민, 일
등시민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성시신문이 제 몫을 다할때 춘천성시
화 운동의 열매는 아름답게 열릴것이
라 생각합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창립 2주년 기념
예배와 성시신문 창간을 축하하며 하
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창립 2주년 성시신문 창간 축하!

정각자동차부분정비업소

미스타 자동차관리(주)춘천서부지사

긴급출동 · 보험 침단순회정비



춘천 동부 장로 교회
대표 이 광 현 집사

춘천시 근화동 236-15

☎ (0361) 255-0081
257-1681

성광전기

(제2종 전기공사업체)



성광 장로 교회
대표 김 철 호 집사

춘천시 후평동 678번지

☎ (0361) 255-8545(주)
252-6345(야)

금광제화

29년
전통의 수제화



춘천 동부 장로 교회
대표 김 학 구 안수집사

춘천 중앙로2가 22-1 (주택은행 뒤)

☎ (0361) 254-4515

세계제일의 성도 춘천을 소망하며



정상교 목사
삼발침례교회 담임
춘천교역자연협회장

전국 초유의 거대한 기독교 운동이 이곳 춘천에서 일어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기

쁜 일이 아닐수 없으며 이 기쁨을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온 도시를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드는 일은 우리들의 꿈이요 소망이라 하겠습니다.

춘천성시화운동은 1972년 그씨앗이 뿌려지고 성장해 왔으며, 본인이 교역자 연합회 총무직에 있을 당시인 1992년 8월2일 초교파적인 연합집회를 가짐으로 모든 교회성도들과 시민들에게 공표된 운동으로써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가 될때 그 힘은 놀라웠으며 금방이라도 춘천성시화가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세계 어느 도시라도 그 도시전체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건설하자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으나 이곳 춘천에서는 대표적인 언어로 통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승리와 성도들의 승리가 아닐수 없을 것입니다. 춘천에 사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성시화(聖市化)라는 거룩한 단어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모든 시민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모범시민이 되는 일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춘천의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은 춘천성시화운동을 위하여 1996년 9월12일 기독교연합회를 결성하고 동연합회장을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으로 하여 성시화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는 조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창립된 지 2년동안 성시화운동은 괄목할만하게 성장하였고, 이제 성시신문을 창간하게 되었음은 바로 본격적인 성시화운동으로의 진입을 의미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성시신문을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교계소식, 직장선교소식, 세계선교소식, 성도들의 소식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하나의 운동으로 그 역량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은 춘천 성시화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동참의 열의를 더해야 하겠습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창립 2주년과 성시신문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창립 2주년 성시신문 창간 축하!

성령의 권능만이 전도하는

기독교 **춘천중앙교회**
대한성결교회

CHUN CHEON CENTRAL EVANGELICAL HOLINESS CHURCH



담임목사 **윤철중**
Pastor : Cheul Jung Yun

장로: 허종구 남궁수명 김태인 김경수 최선규
이태집 차형렬 엄창화 현재학 박순신 박한병
박주병 김치경 이갑채 남궁연 김죽선 이관섭

춘천시 죽림동 86-7 ☎교회사무실 : 256-3537, 8 Fax : 256-3543
당회장실 : 256-3535, 목사관 : 256-3536, 부목사관 : 256-3539, 256-3540

춘천 베드로 정형외과 병원



원장 **조은제** 장로

춘천시 효자2동 312-1
전화 253-5373, 257-5170, 253-5171

성시화된 춘천의 앞날을 꿈꾸어 보며



김주환 목사
순복음 춘천교회

얼마전 제가 몸담은 교단의 계절대학원 마지막 학기의 몫으로 선교여행을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방콕 시가지를 관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수상시장과 사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장 중심부에 있는 황금사원은 인간의 온갖 재주와 정성을 모아 건축한 결정품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부처님에 대한 신앙적인 자세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자세보다 더 헌신적이고 절실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외형상으로 나타나는 제반형태와 사건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안다고 하였는데 그 사회속에 나타난 열매는 그렇게 아름답게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마약문제, 총기살인사건, 이혼, 성적부패등은 극에 달해 있었고 절대다수의 국민은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춘천에 인구50%이상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도성이 되었다면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상상의 나래를 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범죄가 줄어들 것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은

부패함이 힘을 잃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영광돌리는 새로운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청년학생들은 모여서 공원에서, 거리에서, 교회에서 기타를 치며 복음송을 부르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과 봉사와 섬김으로 빈곤한 자를 보살피고 병든 자를 위문하며, 간헐 자를 돌아보는 사랑의 수고가 함께 할 것입니다.

시의회, 도의회가 기도하며 개회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장의 지침이 세워질 것입니다. 교회교회마다 주일날 성경찬송을 들고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로 거리가 메워지고 모든 시장이나 상점들은 안식을 위하여 문을 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그 분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성시화된 춘천의 모습을 보기위해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는 그 날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전혀 불가능하고 꿈만같은 잠포대 소리라고 치부해 버리지 말고 춘천의 200~300교회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함께 그 꿈을 꾸어 볼때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춘천에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려서 함께 기도의 무릎을 꿇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시회원모집

내고장 춘천을 위하여 봉사하실 기회를 드립니다.

춘천을 서로 믿고 사는 아름다운 도시로 만드는 일은 먼저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이니까요!

- 단체회원-모든교회, 각 직장선교회, 선교기관
- 일반회원-개인별
- 회비-(단체) 1만원이상, (개인) 1천원이상 송금은행 및 방법은 아래 표 참고 바람.

송금방법

• 후원방법은 자동이체가 편리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서 신분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거래은행 방문

농협 203-02-280238

(예금주/조남진)

강원은행 509-05-025501-001

(예금주/조남진)

우체국 200022-0239352-12

(예금주/조남진)

국민은행 301-01-0585-522

(예금주/조남진)

제일은행 625-20-265119

(예금주/조남진)

매월 5일 강원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시 입금수수료가 없는 날입니다.

성시신문 기사 보내주세요

뉴 스 : 교회행사계획·결과, 목회자 동정, 국내외 선교, 선교단체 소식(사진필요시 첨부)

투 고 : 목회자설교, 간증, 성도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 시, 그림, 만화, 만평, 자녀교육 등

광 고 : 교회, 선교단체, 기업체, 개인 등

보낼곳·기간·방법 : 매월 10일까지 전화 또는 문서·리포터 방문취재

춘천성시신문 담당자 앞

☎ 256-1260-1 FAX257-1260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춘천교회

표어 :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교회 요17:1~5

당회장 김주환 목사

1대교구장 : 김성수 목사

2대교구장 : 전희중 목사

3대교구장 : 오의석 목사

장 로 : 조남진 최종연 주송희

김용현 백원일 이자수

임운식 양기홍 김진현

조은계

심방전도사 : 이문자 이정신 송난의

교육전도사 : 현동현 남궁록

교육간사 : 한순기 원정상 이영숙

박유미

파송선교사 : 김주임 최은순



교회창립일 1972. 4. 3

200-092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651

☎ 교회사무실 253-2741 256-2741 당회장실 253-2742 목사관 253-2743